

“學問과 教育에 바친 電子工學界의 선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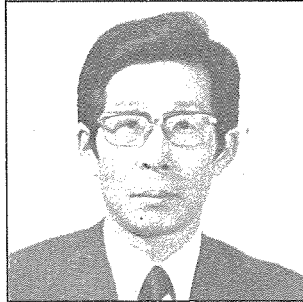
電子工學 40년. 그것은 격동의 역사였다. 해방 후 동양에서는 가장 電子工學界에서 끝을만 한 日本마저도 늦게 시작했다는 약점에 겹쳐서 戰爭때문에 海外의 그간의 電子工學과 電子産業의 발달과 두절된 데에서 생긴 무시 못할 落後를 어떻게 만회 하느냐 해서 막막했던 때였다.

1948년 國立大學校가 설치되고 電子通信學科가 발족했을 때 그 學科의 여러 教授들 어깨에 걸린 짐은 그당시 이 관계 學科를 갖고 있는 大學校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적은 짐은 아니었고 그러나 후일에 결실이 크게 있었던 바 보람이었던 것이다. 그분들에게는 그때부터 밤잠 줄이는 고달픔, 그리고 社會活動 杜絶이란 보이지 않는 창살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 學校, 그 學科의 우수한 學生들의 영롱한 눈 빛은 항상 그곳 先生을 게으르게 남겨두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故 李在坤先生이 學科名을 通信工學科로 改稱하고 우수한 人力들이 教授로 奉職하기 시작했고 6·25사변이 일어나게 된 1950년에는 본격적인 어려운 選拔試驗을 겪은 우수한 學生들이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 時代의 흐름이 있어서 學生들마저 나서서 다시 科名을 개칭하자고 성화를 부려서 1968년에는 電子工學科가 되었는데 그무렵부터는 電子工學의 本格的인 발달이 시작되었고 學生들의 質도 韓國에서도 가장 우수한 便으로 옮겨 가기 시작한 것이다.

激動의 歷史는 繼續되었다. 그



朴熙洙先生 (1925 - 1981)

것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韓國電子工學界가 零으로 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理論의 國際水準線까지의 提高를 위해서 밤 낮을 가리지않고 教科書, 資料 그리고 論文에서 눈을 땄수 없는 “끝없는 싸움”터에서의 人生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끝없는 싸움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과로로 쓰러진 분이 바로 朴熙洙教授였던 것이다.

朴교수는 가장 原則에 가까이 살다 가신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原則固執이 空軍에 있을 때에도 서로서로 불편한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서울대에 재직시에도 碩士課程에서 능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정되는 學生들에게 “博士課程에는 오지말라”고 단호하게 말 해버리는 간간한 教授로의 색다름을 유지하였다.

電磁波에 관심을 둔 선생은 數式計算에 남다른 실력이 있었는데 電界磁界 및 안테나에 관심을 두고 그 후에는 마이크로·웨이브에 주력을 하였다. 外部에서 일의 요청이 거의 없었던 무렵이기는 했지만 그 무렵 某 放送局 送信塔에서 스파크가 계속되어

그 일에 대한 해결이 서울대에 위촉 되었을때 다른 教授들과 이를 해결한 일이 있었다.

그후 英國留學을 갔는데 本人이 남의 論文읽는 일에 그 때까지 소홀했음을 깨닫고 그다음 부터는 선생의 冊床 위에는 항상 論文이 놓이게 되었고 몇몇 우수한 弟子를 배출하면서 마이크로파 연구실은 본격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學派를 형성하고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教室”로 研究의 불이 붙은 셈이다. 이는 英國의 맨체스터大學에서 반도체 오믹접촉등 物理電子의 實驗技術에 聖火의 불을 붙여온 李正한 教授의 物理電子教室의 境遇와 함께 큰 歷史的 事實이다.

그때 경우가 밝고 억지 없는 두분이 다 우리科의 빈약한 豫算을 어느 해엔가는 다른 사람들은 거의 손대지 못하게 하고 本人들 教室에 배당시켜 줄 것을 요청한 일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 드렸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教室을 하나 본격적으로 출범시키고 싶어 하는 순수한 욕망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 보였기 때문이고 그 教室들이 승계할 사람들 없이 청소되어 버린 오늘 날까지도 후회가 되지 않는 마음 흐뭇한 일이기도했다. 그 분들은 學問을 위해 私人으로는 부리는 일이 없던 욕심들을 부린 것이다.

一生을 學術과 教育에 몸바치시고 타계한 지금은 아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밝은 빛을 빛내고 있다.

安秀桔

〈서울대工大교수·電子工學〉